



너와 더불어 모든 일체를 다 바로 쉬어라

마음 도리 알고 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문) 한동안 환희심에 차서 공부한 적도 있었는데 몸에 병이 생기고 고통이 커지면서 공부도 뒷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 도리는 알고 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정신 차리게 한 말씀 알려 주십시오.

답)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참 위급하고 모든 게 그냥 급급하고 아주 죽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죠. 세상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노라고요. 옮겨 놓을 뿐이지 어디 갈 게 있으며 어디 올 게 있는가. 본래 근본 그 불성 자체의 성주는 그대로 있건만 몸뚱이가 떨어져서 지수화풍으로서 다 흩어진다는 거. 그러나 그것도 매정할 때 얘가지 지금은 화장하니까 뭐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말고도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 뜻은 다 같죠.

그러나 이 몸뚱이가 살 양으로 애쓰면 죽어지고 죽으려고 한다면 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만든 것이 너기 때문에 부처 놓는 것도 너, 아프게 하는 것도 너, 고장난 것도 너니까,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라.' 하고 탁 맡겨 버리세요. 그냥 맡겨 버리면 다 알아서 할 건데 맡겨 놓질 않기 때문에 그놈의 걸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 공장에 취직을 해서 갔는데 맡겨 주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고 맡겨 줘야 일을 하지, 잘못하든 잘하든. 그래서 한 번 잘못된 건 병가지상사라고 이것이 한 번 잘못했다 하면 그건 능력이 높아 가지고선 '아, 요력하면 잘못하지 않는 거로구나.' 하고 한번 이렇게 돌려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일체를 쉬어라, 나라, 말겨라,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감사해라. 모든 것은, 너의 몸뚱이는 네 주인의 시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시자가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질 뿐이지 너는 쉬어야 된다. 너와 더불어 모든 일체를 다 바로 쉬어라 하는 거죠. 그것은 좀 문서를 놓지 않고는 절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 내가 그때에 스무 살도 못 될 때예요. "스님, 얼마만큼 가려면 죽습니까? 죽으려고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아요." 하니까, 내 몸뚱이가 죽는 줄 알고 말입니다. 이 안에서 죽어라, 죽어라, 자꾸 '죽어라' 그러거든요. 이거 몸뚱이가 아주 죽어 버리라는 줄 알고 그냥 차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어주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스님, 얼마

만치 가면 죽습니까?" 하니까 눈을 뜨고 꼭 자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꼭 자야만이 죽는구나." 그러거든요. 그러예요, 바로! 여러분이 눈을 뜨고 꼭 자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 움직여지고 이러는 것도, 즉 말하자면 전자자동기에 의해서 이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내 마음에 의해서 스위치만 눌렀다 하면은 그냥 자동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한마디로 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한 점의 마음에 있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남 달린 코드 달렸고 남 달린 눈도 달렸고 귀도 달렸고 이 오관을 통해서 염력하고 똑똑하게들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한 칼을 뽑았다면 그냥 질 수는 없지요

애를 안 날려고 했는데

문) 요즘은 애 하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하고서도 애를 안 날려고 했는데 실수로 임신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지울 수는 없고 이렇게 된 거 좋은 인연을 만나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지금 임신 3개월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임신을 한다 하면 정자와 난자가 5억이나, 한번에 5억이나 들끓게 됩니다. 그건 왜 5억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삼천도 지금 의학적으로는 그냥 우수하게 되는데 왜 5억이라고 말을 했는가. 한 생명이 생긴다면, 물질이 생긴다면 그 물질 속에 몇 마리아, 그 생명이 얼마나 많기에

한 몸이 생기겠습니까. 아직 점령을 안 했다 하더라도 생명이 하나 생겼다 하면 벌써 구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 마리가 딱 임신이 됐을 때는 그 여러 마리가 한 마리도 전부 귀함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생명은 하나니까 거기로 다 해서 하나가 돼 버리는 거죠. 하나가 돼 버리니까 나머지는 물로 그냥, 즉 말하자면 없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죽고 없어지고 한 마리만 된다 이러는데, 천만에요. 만약에 개수로 따진다면, 3천 마리라면 3천 마리가 한 마리가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가고 옴이 없이 그렇게 무공무진하다는 그 뜻을 모르고는 본 부 뜻을 못 탑니다. 그런데다가 애가 들어설 때에도 들어서서 삼 개월이 된다면, 삼 개월 되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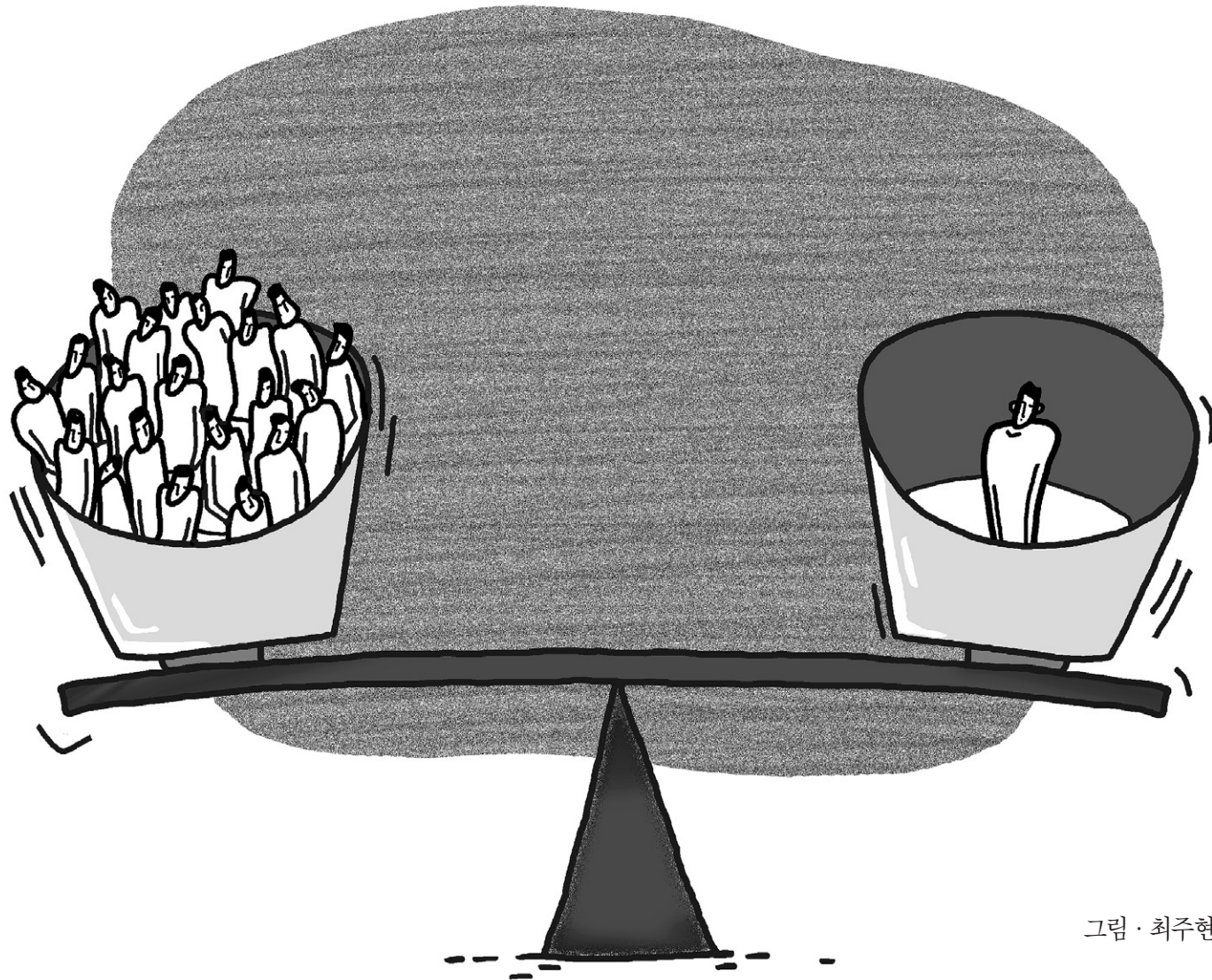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만 하더라도 엄마와 자식과 땃줄에 의해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주고 받고 주고 받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가 있었죠. 임신을 하자마자 남편이 고만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애를 낳을 때까지 그 교도소를 다녔습니다. 거길 다니면서 본 거라곤 그거밖에 본 게 없는 거죠. 열 달 내내, 만 아홉 달 만기가 되도록 그것밖에 본 게 없는 겁니다. 허구장창 나서면은, 사식 가져 다니고 허구장창 옷 가져 다니고, 온통 그것 걱정이라. 그랬는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꼭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나 몸뚱이가 아무리 다녀도 마음이 그렇게 말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그놈의 거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모든 게 그렇게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들어간 거죠. 그 영향이 어디 가겠어요? 물질의 영향도 보급이 되지만 바로 마음의 영향도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신 집이나 뭐, 그 만신 집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만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국민학교를 다녔으면 중학교 갈 줄 알고 고등학교 갈 줄 알고 대학 갈 줄 알고 대학원 갈 줄 알아야지, 그리고 사회에도 나설 줄 알아야지 인간이 아닐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알 양으로 노력을 해 봤다면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 영향이 어디에 미치느냐 하면 바로 애한테로 다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유전을 받아 가지고 무당 어머니에 무당이 또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유전이지요.

또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예요. 소소하게 우리 살아나가는 데도 그 영향이 애들한테 얼마나 미치느냐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먹는 대로 영향을, 의학적으로는 먹는 대로 영향이 애한테 간다. 약을 먹으면 약이 영향이 가고, 이런 것만 알았지, 그 보이지 않는 참 기묘한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거는 도대체 모르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만나서 내가 임신을 했다면 거기에 영향을, 자기의 영향대로 거기에 미치게 되죠. 그러니 내가 작으면은 그 아이도 작지 어떡하겠습니까. 영향을 자꾸 받았으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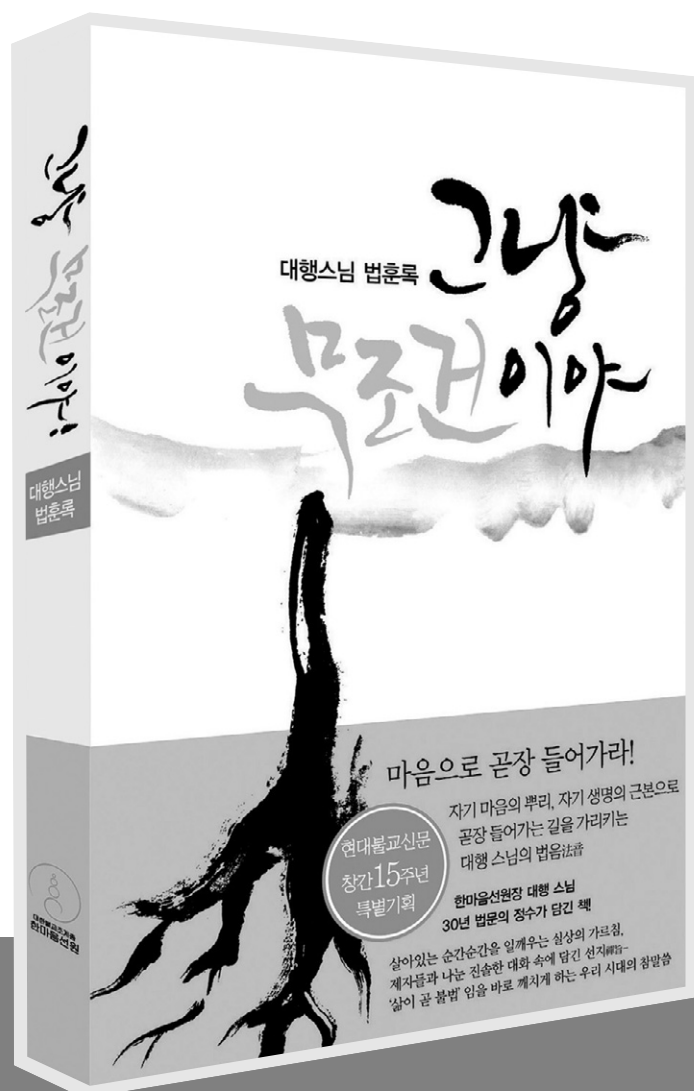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 법문의 정수가 담긴 책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친성(親性) 가르침.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눈을 뜨고 꼭 지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29면에서 계속

팔 심은 데 팔 나느니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쪼들리고 배우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전체 가난하지 않아요. 하도못해 죽을 한 그릇 먹어도 허허 웃으면서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 하고 아마 하늘을 보고 웃을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지금 우리가 손바닥만한 데 지금 오물쭈물 모여서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가 정 내 가정 찾고 온통 애들들을 하십니까. 이 지구 한 덩어리 딱 따져놓고 본다면, 그 손바닥만도 못한 놈의 거를 가지고 온통 애들들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될 노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배 속에서 받는 영양은 너무나 큼니다. 그런데다가 사회 상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건 또 나중에 받는단 말입니다. 낱아 가지고도 받아오, 그놈의 걸, 애보는데 뭐, 별 육 다 하고 별 싸움 다 하고, 그저 나가고 들어오고 벌어먹는 것도 중하지마는 벌어먹는 것도 본부에서 연방 전달을 해 가면서, 상응하면서 한다면, 만약에 부부 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애들은 천상 착해요. 본부가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아들처럼 내버리고, 이것은 뭐 먹을까나 주고 그저 조금 저거 하면 돈이나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아, 외롭고 '아, 집에 들어가 봤자야 뭐 그것도 없는데, 친구한테나 가이제.' 이리하다 보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나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니까 남편이라도 생각해 주겠지.' 천만에요. 자기의 육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살려고 열 써도 그것은 아랑곳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가정에서든지 자기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손이 안 닿을 때에 일하는 건 관찮아요. 와서 가깝게 닿을 때는 언제나 내가 항상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되어 줍니다. 동생이 돼 주고 딸이 돼 주고 때에 따라서는 할머니도 돼 줄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풍부하고 그 본부의 근본을 따라서 오직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남자는 언제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행을 다 하면서 또 결국은 아버지가 됐다 친구도 됐다, 또는 동생도 됐다가 아들도 될 수 있어야 그 집안이 화목하고 재미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노인네들 말씀하실 때 이런 게 있지요. "너는 끄트머리도 먹지 말고 머리도 먹지 말고 중간만 먹어라. 중간만 먹어라. 네모반듯한 걸 먹어라." 이렇게 할 만하다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반듯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래로 아주 '반듯하게 먹어라.' 이러거든

요. 그거라도 반듯하게 먹으면, '내가 요거 반듯하게 먹으니까 애 마음도 반듯하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라도 먹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건이야 끝을 먹든 머리를 먹든 중간을 먹든 그건 상관없어요. 마음 주동만 똑바로 선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때에 따라 어떠한 뭐가, 자갈밭이 닳친다, 가시밭이 닳친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본부를 찾는 법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것이고, 또 자녀들한테도 바로 그 영양이 비 내리듯 주어질 거예요. 이것은 물질로

정에서 벌이를 못해 온다거나 또 부인이라면 아 파서 드러누웠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아주 밭에 딱딱 채일 정도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불쌍하고 안됐다는 생각은 그지없지만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어서, 그저 고생하지 말고 죽었으면...'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로 벌이를 못하고 내내 몇 년간 놀아 보십시오. '저자는 아이구, 그냥...'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애정이라든가 이런 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진짜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도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뉘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렇듯

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야 형제가 단 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그 물질의 착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어떠한 부처는 그렇게 애걸 했습니다. "언제 형제가 있었던가, 너의 형제는 벌써 이미 죽었고 너의 형제는 없느니라." 하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그건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참 내가 억급 소릴 잘 하지마는 그 모습을 바꿔서 바꿔서 이날까지 점차 바뀌 나왔습니다. 바뀌 나오는 동안에 난 이걸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절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문)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지만 돈 벌이도 해야 하고 집안 살림도 돌봐야 되는 처지라 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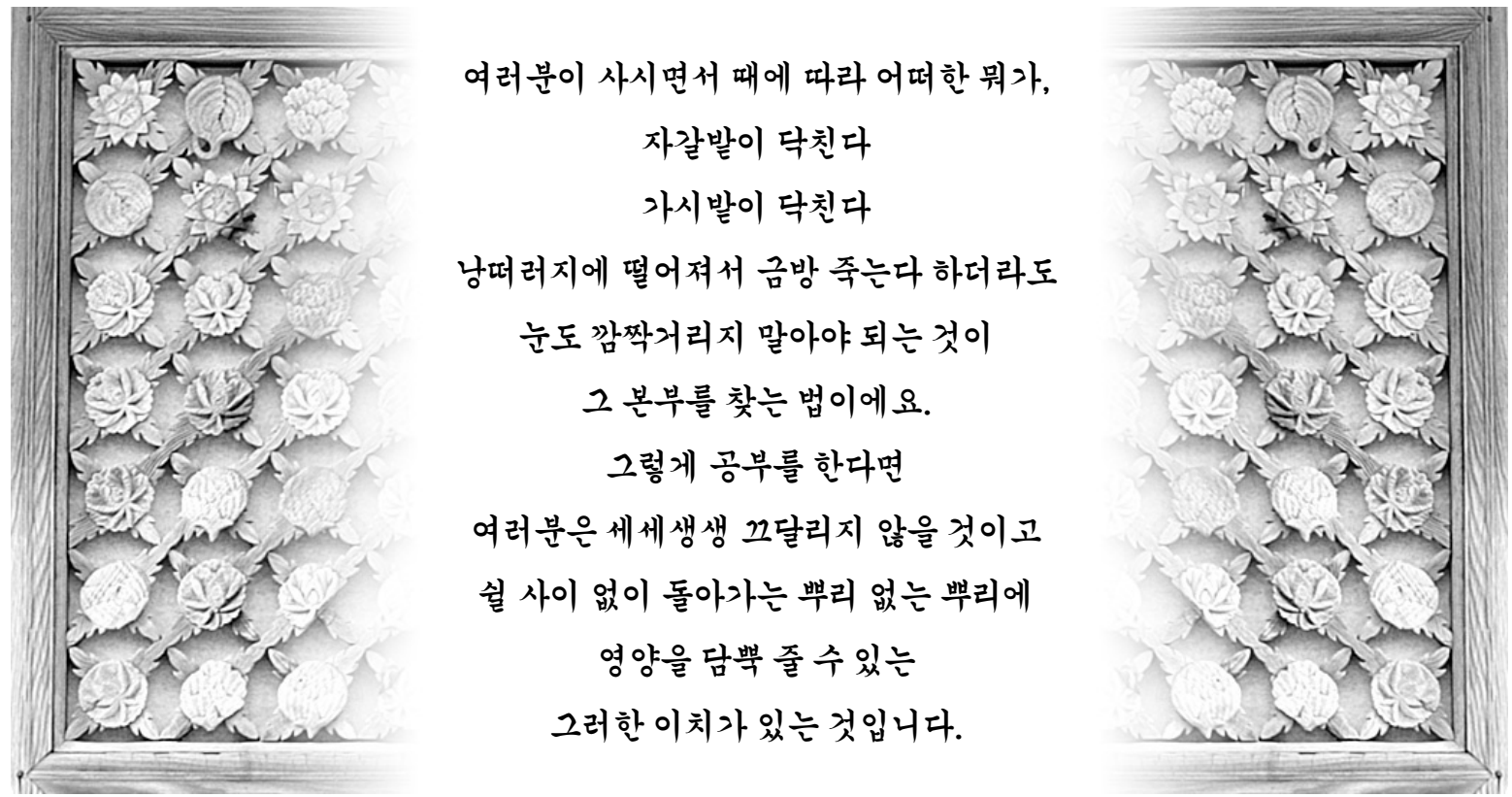
(답) 우리가 지금 벌이해서 밥 먹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또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야 공부를 하지 내 몸뚱이가 죽으면은 그 공부를 못하거든요. 이런 공부 할 수 있는 한도량에 한 마음으로서 이렇게 만나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시대를 좇아서 딱 만나기가.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믿지 않으면서 입장만 해놓고는 그냥 일한다고 바쁘다고 안 오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은 그때는 그냥 탄소리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집안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이 살림하는 데 모든 게 살림 따로 있고 그 믿는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부자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소꿉장난을 하는데 해가 지면은 모두들 그걸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소꿉장난을 좋은 거를 갖다 놓고 하든 안좋은 걸 갖다 놓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깨진 뚜껑리를 갖다 놓고 소꿉장난을 하든 좋은 그릇을 갖다 놓고 소꿉장난을 하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외려 깨진 뚜껑리에다가 놓고선 오손도 손 싸움 안 하고 그냥 먹는 걸 보면 좋구요. 좋은 그릇에 놓고도 그냥 싸우고 팽개치고 모두 이런 거 보려면 정말 뚜껑리 생활보다 그게 외려 참 살기가 고통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군요.

이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우리가 그냥 한 철 살다가 죽으면은 다 지금 그 영혼이, 이 마음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그냥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따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아무 데나 그저, 뱀이 사는 데나 까치가 사는 데나 짐승이 사는 데나 토끼가 사는 데나, 아무 데나 자기가 다치는 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공부 한 사람들은 뜻을 알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 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우리가 절에 다녀서 무슨 뉘를 어찌겠는지, 뭐 잘되느냐 못되느냐 이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훨훨 벗어나야만 이 내 한 몸 벗어나는 데 수천수만 명이 벗어나야 이겁니다. 수천수만 명이 벗어나야 되는데 그 수천수만 명이 또 벗어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류화시키는데 목적을 두란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주인공에 합류화시키는 거, 그것을 목적을 삼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냥 다 지금 깨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을 갖고 배로 생활하는 그 속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때에 따라 어떠한 뭐가, 자갈밭이 닳친다, 가시밭이 닳친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본부를 찾는 법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세세생생 끄달리지 않을 것이고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뿌리 없는 뿌리에 영양을 담뿍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양을 섭취를 시키는 게 아니라 뿌리 없는 뿌리에 기동 없는 기동이 멈춰서, 멈춰서 쫓힌 게 아니라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그 뿌리 없는 뿌리에 영양을 담뿍 항상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면 당연히 착이 생기는데... (문)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당연히 착이 생기게 마련이 아닌지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착을 다 따라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 왜 집착을 두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에 착을 두지 마라, 또는 형제에 착을 두지 마라, 부부에 착을 두지 마라 하는 것은 이미 본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사랑하기에 진짜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 사랑하는데 물질을 보고 사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때에 따라서 가

이 진짜 사랑을 알려면은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 번 죽기 어려워 했다니 두 번 죽기 어렵다 하는 것이 같이 들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상대를 두고 나를 두고 항상 이렇게 되니까.

물론 물질로써 상대는 상대대로 있지요. 하지만 그 상대와 더불어 일부러 둘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하고 인연이 돼서 아는 사람이나 친척같이 나 자식지간이나 부모자식, 아예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는 거죠.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물질을 가지고서 거기에 연연해서 사랑한다느니 또는 거기에서 연연해서 있지 못하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아, 그쪽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나는 내대로 생각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쌍방이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문제가 얼

모습을 바꿔서 갖다 놓으면은 그 집 식군 줄 알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면은 저 집 식군 줄 안다 이겁니다. 전지에 살던 인연은 아예 까맣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바로 바서는 그렇게 뒤섞이다 보니까 내 형제가 아닌 것이 없고, 내 부모가 아닌 것이 없고,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없고, 전체 이것은 내 남편 내 부인 아닌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사랑이 깊고 깊은 줄은 정말 미처 몰랐다는 생각이 예전에 달컹 들었습니까.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짜 사랑만 알고 진짜 사랑은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건 아닌 진짜는 바로 한마음 한 줄에 껴어 있는데 왜 바깥의 모습에다, 물질에다 착을 두느냐 이겁니다. 물질을 보고 착을 두면은 절대로 그것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사)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1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아 래

- ❖ 자 격 : 식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 개강일 : 2013년 2월 28일 (음력 1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진영포교당)
- ❖ 과 목 : 근 초급반 - 예경의식 (도량서,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근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근 상급반 - 바라 및 책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 강 사 : 묘산, 수암 (011-488-7060) (내전강의는 본회의 학장이신 한파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 ※ 자세한 문의로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055)343-2267~8700

(사단법인)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대,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 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면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정 속에 이끼처럼 숙면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수정기공 특강 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